

가사도우미에 의한 가사노동대체,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Daily Help Substitution for the Household Work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 수 김 선 미**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Kim, Seonmi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V. 주부의 가사도우미 관리방식 |
| 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VI. 결론 ; 정책제언 |
| III. 가사도우미의 고용 | 참고문헌 |
| IV. 가사도우미 가사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논의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thnography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employment and substitutional use of daily help for the household work. Ten housewives and one educator of daily help from Gwangju City were interviewed with an unstructured questionnaire. They experience many difficulties from this daily help employment and use, even though they gain some basic help from their service. The diversity of the routes to seek out this daily help means that there is no proper route. And the daily help's sudden quit causes many realistic and psychological problems. Frequent disagreement between the user's demand and help's implement comes from communication failure. Three different management patterns of daily help were issued ; 'conservative-dominant', 'rational-mandatory', 'powerless-dependent'.

Key Words : 가사도우미(daily help), 가사노동(household work), 가사도우미관리유형(management patterns of daily help)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광주대학교의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김선미 (yupy1005@hanmail.net)

I. 문제제기

주부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곧 ‘가사도우미’-세칭 파출부-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온전한 문화기술지를 얻으려면, 주부와 가사도우미 양측을 연구하여 양자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각자의 경험과 해석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온전한 문화기술지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먼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주부의 경험과 관점을 연구한 것이다.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사 일을 도와 온 역사는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단위였던 가족경제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서구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유사하다¹⁾. 한 가족에서의 잉여 노동력과 다른 가족에서의 부족한 노동력을 상호 교환으로 보충하던 시기에는 주로 미혼여성이 다른 가정의 식모가 되었는데 방출가족으로서는 입을 털어 냈고 수용가족으로서는 이들에게 밥을 먹여 주는 대신 허드렛일을 시켰다. 따라서 특정기간에 대한 계약이나 임금지불은 보편적이지 않았다²⁾.

그러다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임금노동이 보편화되면서 살림규모가 큰 가정에 의해 임금을 주고 입주하여 가사 일을 돕는 가정부가 생겨났고, 다시 사생활의 중시, 주거비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거는 따로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소위 파출부³⁾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화 및 소비사회의 진행과 병행하였는데, 한 편으로 미혼여성노동력은 새로운 산업에 흡수되었고, 다른 한 편으로 가계의 소비표준 상승에 의해 화폐소득이 필요해진 기혼여성은 다른 가정의 가사 일을 돕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 사용하는 가사도우미라는 용어는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그 뜻은 파출부와 같다. 하지만 파출부가 가정에서 주부가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용어로 입주가정부와 대비되어 ‘부르면 오고 일이 끝나면 되돌아가는’ 출퇴근을 강조하는 용어였던 반면 가사도우미라는 용어는 가사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베이비시터 혹은 간병인 등과 같이 전문화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다. 현재에도 가정부와 파출부 그리고 가사도우미는 용어가 공존하듯 그 존재도 공존한다. 실제로는 여전히 ‘파출부아줌마’ 혹은 ‘아줌마’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주부 대신 특정 가사 혹은 가사의 상당한 부분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므로 전업주부가정과 취업주부가정에서 두로 활용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산업화와 사회화가 많이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그 것이 일상생활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개별 가정으로서는 끊임없이 가

- 1) Tilly와 Scott(1987)의 여성, 일 그리고 가족이라는 책의 많은 부분이 가족경제시기 내 가족 간 노동력 교환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가정부가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임하(2003)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라는 논문은 우리나라 1950년대와 1960년대 식모의 보편성과 그 생활상을 상세히 적고 있다.
- 2) 이재운(1976)변호사의 법률기고문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가정부의 고용계약의 성질과 종료에 의한 보수액산정에 관한 시사법률문제 - 에 보면, 12세에 상경하여 1966년에 완전 무보수로 쫓겨난 어느 가정부의 경우로부터 당시 “시집갈 때에 일시적으로 지급받기로 할 뿐 구체적인 보수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일반적 세태를 알 수 있다.
- 3) 파출부 [派出婦] [명사] 보수를 받고 출퇴근을 하며 집안일을 하여 주는 여자.
<http://search.daum.net/search> / 2008.10.19 최종방문

사노동을 수행해야 할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이중역할에 시달리는 취업주부가 가사노동부담을 줄이고 부재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사용하기도 하며, 개별 가정의 사정에 따라 많은 양의 가사노동 요구가 있거나 특정 분야의 가사노동 필요가 있는 전업주부가정이 모두 이 가사도우미의 수요자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사노동수행방식의 하나로 가사도우미사용에 집중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필수영역인 가사노동 그리고 그 전담자인 주부의 삶 일부를 조명한다. 연구자의 관심은 가사도우미의 수요자와 공급자 양 면에서 출발하였다. 즉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그리고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조명해 보는 것이다. 양측의 실제 경험을 연구하여 갈등의 지점을 밝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한 편으로는 가사도우미들에게 잠재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다른 한 편으로는 가정별로 형편에 알맞게 가사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덜 알려진 영역에 대한 연구이므로 먼저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록 연구자나 이 논문의 독자 중 일부가 가사도우미 사용 경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질적 연구의 접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풀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가사도우미 고용을 둘러싼 이슈는 무엇인가? 둘째, 가사도우미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가 사용되는 맥락은 어떤가? 셋째, 가사도우미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주부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먼저, 현재 개별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특성을 특별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가사도우미사용을 둘러싸고 개선

되어야 할 세부 사항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개선사항에는 양자 간 상생(win-win)방안이 포함될 것이며, 가사도우미 관련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봉사원(파견)제도를 실시할 때, 가사도우미 양성 및 알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이 연구는 질적 연구 가운데 참여관찰을 겸하되 주로 심층면접을 사용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문화기술지의 자료 분석의 전통(Creswell, 1998:91-92)을 따라 기술과 분석 그리고 해석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결과로 가사도우미와 상호작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생활문화의 중심 주제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제기된 질문을 산출하며 배울 점은 무엇인가를 해석해내고자 하였다.

가사도우미사용자사에 대한 모집단은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의 사용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임의 표본을 추출하여 개별적인 소수사례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전문직 취업주부가 비전문직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보다 시간제약은 크지만 금전제약은 작기 때문에 가사대체 용역의 고용정도가 높다(이승미, 1989). 이 때문에 먼저 전문직 취업주부 가운데 제보자를 일부 구하였고, 전업주부 가운데에서는 가사도우미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아 제보자를 구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에 기꺼이 응답해주고 토속적인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면접은 제보자의 환경을 최대한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하고자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에서 혹은 시간이 되는 한 명의 제보자는 점심시간

을 이용하여 제보자의 집에서 면접하였다. 또한 전업주부는 제보자의 가정에서 면접하였는데 한 명의 제보자는 남편이 아파 집에 있기 때문에 녹음할 수 있는 조용한 찻집에서 면접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 세 명의 전문직 취업주부와 세 명의 전업주부를 주요 제보자로 하고 한 명의 파트타임 취업주부 그리고 YMCA에서 가사도우미 양성 및 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보조제보자로 심층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주요 면접 자료를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수집 완수하였기 때문에, 논문 집필과정에서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전화로 보조면접을 실시하여 근황을 첨가하였으며, 네 명의 보조면접자와의 간략한 질의응답 그리고 그들에 대한 참여관찰의 결과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한 명의 가사도우미에 대한 면접과 전에 면접한 실무자에 대한 2차 추가면접을 2008년 10월 초에 실시하였다.

문화기술적 면접은 질문-응답의 연속성이 인간 사고에서 하나의 요소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질문은 언제나 대답을 내포한다. 따라서 문화기술적 면접에서 질문과 응답은 모두 정보 제공자에 의해 발견되어야 한다(Spradley, 2003: 102). 이를 위해 답변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제보자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얻고자 비구조적 질문을 주로 활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비구조적 질문의 시작은 ‘언제부터 가사도우미 혹은 파출부아주머니를 쓰셨어요?’ 혹은 ‘가사도우미아주머니 쓰신 경험 좀 이야기해주세요.’와 같은 물음이었다. ‘어떤 일을 부탁하셨으며, 그 아주머니 어떠셨어요?’ 하는 식으로 가사도우미의 고용 및 사용과 관련된 개략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화과정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을 충실하게 이어나갔으며, 불분명한 답에 대하여 대조적 질문이나 반대질문을 활용하였다.

면접 후 기본적 가계의 환경파악을 위해 가

족의 수와 나이, 집의 규모, 사용횟수와 비용 등 명확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면접과정에서 제외된 것만 묻는 것으로 하였다. 세 명의 전업주부 및 취업주부 그리고 파트타임 취업주부, 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는 전사하였고, 가사도우미아주머니를 비롯한 보조제보자들의 면접결과는 연구노트에 축약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부와 가사도우미와 글로 써서 의사소통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사용한 노트와 메모지도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개인적 정보를 보호하고자 매우 간략하게 소개한 표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각 제보자들이 가사도우미를 사용한 역사를 개괄해보자. 제보자들이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포착된다. 취업주부들의 경우 직업적 시간을 중심으로 가사도우미의 노동 시간도 결정되며 상당히 안정적인 활용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개업의인 김민희씨는 딸 하나와 한부모로 살다가 현재는 재혼하여 세 식구가 살고 있다. 아이가 어린 동안에는 친정에서 살면서 가사와 육아를 해결하였다. 재혼하여 친정에서 독립한 후 한 동안 친정어머니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를 돌봐주고 가사도우미가 집안일을 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 성격차이에서 온 육아표준과 가사표준의 불일치로 친정어머니와 별거하게 되고 가사도우미가 전적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그 후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나절씩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패턴이 형성되었다.

심재경씨와 이기연씨는 모두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 없이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전문직을 수행해 왔는데, 자녀가 어릴 때에는 육아와 가사를 함께 하는 ‘아줌마’ 혹은 ‘할머니’를 두었고, 어린 아이가 5-6학년이 되면 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였다. 면접당

시 고교생인 딸을 두고 있고 장기간의 투병이 필요한 환자로서 이기연씨는 일주일에 1회 온종일 가사도우미의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맞벌이 주말부부로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심재경씨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가사도우미가 돕고 있다.

이 세 사람의 풀타임 전업주부와 달리 대학의 시간강사인 김시연씨는 세 아이를 둔 파트타임 취업주부로서 직업적 시간이 유동적인데 어린 아이가 셋으로 가사량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지 않아 자신의 시간사용과 가사도우미사용 모두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시연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에도 전적으로 육아를 맡길 사람을 고용할 수 없었다. 일주일에 두 번 가사도우미를 불러 많은 양의 가사노동도 시키고 육아도 돕도록 시도하였으나 많은 경우 실패담 - 횡수도 적고 시간도 짧아 일을 잘하는 아줌마를 붙잡아 둘 수 없고, 마음에 안 들어도 와준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 만 전해주고 있다.

한 편, 이미경씨와 백장미씨 그리고 임현영씨는 모두 전업주부이다. 이미경씨는 잠시 중학교교사를 하였으나 임신하면 언제나 조산위험이 있었고, 남편이 장래 고소득이 보장되는 군의관이었으며 근무처를 자주 옮겨야 해서 자신의 일을 그만 둔 후 계속 전업주부로 살았다. 이미경씨와 백장미씨는 모두 임신과 출산시에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았고, 혼자 해 낼 만하면 곧 가사도우미사용을 중단하였다가 힘이 들거나 몸이 아프면 다시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방식을 반복하였다. 개업의 남편을 두고 있고, ‘음식을 잘 하지 못 하며 관심도 없

다.’는 백장미씨는 매일 한나절씩 가사도우미가 오지만, ‘다만 몸이 좀 허약할 뿐 가사 일을 모두 잘 한다’는 이미경씨는 가사도우미 오는 날이 일주일에 2-3회 사이를 오고 가다가 결국 2회 한나절씩으로 고정하였다.

제보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임현영씨는 70대 주부로, 부부 모두 대학병원 의사인 기혼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임현영씨는 어린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자식 부부가 대 주는 비용으로 가사도우미를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0여년이 되었는데, 손 자녀가 모두 별거하게 된 현재에도 독립주택의 청소를 위해 주 1회 온종일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임현영씨는 개업의인 딸과 가사도우미를 공유하고 있다.

III. 가사도우미의 고용

제보자들의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비공식부분⁴⁾ 노동계약의 여러 가지 어려운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가사도우미의 고용을 원하지만 어려운 고용 문제가 많다고 하는 데에는 고용 경로의 다양성 그로부터 비롯되는 선택의 어려움 그리고 지속적인 고용 혹은 교체의 어려움이 들어간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전략들이 발견되었다.

1. 가사도우미 고용 이유와 고용의 기준

제보자들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이유는

1) 가사노동의 절대량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

4) 비공식부분이란 기업조직을 구성 경영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력이 공식 부문에 더 이상 직업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불안정하고 비지속적인 고용조직에서 저임으로 고용되어 노동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경제활동분야. 이 분야 노동의 특성은 첫째,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고용구조를 가지며, 둘째, 저임급 노동이며, 셋째, 사회적인 보로서 결핍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노동이며, 넷째,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진입이 용이하다(박정문, 1987, 현정혜 박혜인, 1992, 185에서 재인용).

는 경우, 2) 그리고 임신과 출산 혹은 임신 시 조산 징후와 같은 긴급 상황, 3) 가계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4) 그 동안 육아와 가사노동을 도와주던 친정어머니의 대체, 5) 자녀의 사교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사노동을 주부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많은 형태의 가정이 여전히 있거나, 같은 가정이라도 특정한 생활주기상 상대적으로 많은 가사노동요구로 인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보완 대체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말 해 준다.

고소득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일에 따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패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나 파트타임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나아질 때 고용하고 경제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가사도우미에 대한 비용이 주관적으로 많이 지불된다고 느낄 때 고용을 중지하거나 횟수를 감소하였다. 전업주부들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녀와 남편을 위해 몸을 아끼기 위해 고용한다고 위무하였다.

고용기준은 1) 인성과 2) 경험 그리고 3) 가사노동의 질이다. 인성에 관한 것으로는 첫째, 믿을만한 사람인가(양심이 바른가, 시간을 잘 지키는가, 갑자기 그만 두지 않을 사람인가, 시장까지 봐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가), 둘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인가), 셋째, 자존심이 높은 사람인가(지킬 도리를 지킬 사람인가, 열등감이 없고

낙천적이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사람인가) 등이다.

경험은 ‘우리 집과 비슷한 집’ 혹은 ‘내가 그 사람의 살림표준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해 보았는가’를 뜻한다. 이 전 집에서 아이를 주로 돌보았다고 들었다든지, 공무원의 아내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항상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기 때문에 다림질을 잘한다든지,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진 아주머니는 음식을 잘한다든지 하는 생각도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가사노동의 질이라면 깔끔한 사람인가, 정리를 잘 하는가, 빨래를 해도 삶아주는 사람인가, 음식을 잘 하는가 등으로 묻고 있다.

제보자마다 인성과 경험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공통되었으나⁶⁾ 가사노동의 질에 대해서는 표준이나 강조점이 달랐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고용하여 경험해보기 전에 인성과 가사노동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특성을 가지며 경험 후에도 살살이 알기 어려운 신뢰재(credence goods)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부들은 최대한 정보를 얻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고용루트를 선택하여 고용하는 방식에 잘 나타나 있다.

2. 다양한 고용루트

제보자들이 가사도우미를 구한 경로를 보면, 1)친정어머니와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친척의 소개, 2)신문의 구인 광고, 3)인력파견업체, 그리고 4)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루트를 조합해서 경험하였으며

5) 아이들 차 태워주기와 밥하기 병행의 어려움. 밥하기 맡김. 제시간에 먹고 빨리 재우기 위한 시간관리 측면에서 가사도우미 활용. “교육하고 집을 같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 같아요. 애들 교육에 관심 초점을 두잖아, 이런 생활은 그러다 보면 일은 남에게 맡길 수 있지만 교육은 내가 해야 하니까.(백장미)

6) 가사도우미의 나이가 더 어릴 것을 강조하는 제보자는 “나이가 많은 분은 어머니 같아서 일 부탁하고 내 일 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나이가 젊으면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편하다.”고 느꼈다. 현재 YMCA는 가사도우미교육생 모집 시 55세를 연령의 상한선으로 놓고 있다.

제보자들은 고용루트별로 아주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다.

먼저, 아는 사람이 소개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백장미씨와 김민희씨와 같이 친정이 같은 도시에 있는 경우 친정엄마가 가사도우미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친정엄마들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식으로 은근한 압력을 넣기도 한다. 가사도우미로서는 두 명의 boss가 있는 셈이며 주부로서는 어머니라는 보조 관리자를 가지게 된다. 친정어머니들은 딸이 가사도우미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한가롭고 여유롭게 해야 잘 해줄 마음이 생긴다’라고도 하고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 마라’는 조언도 한다.

이미경씨는 자기 집에서 가사도우미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아주머니의 총수입을 늘려 주기 위해 형님 동서 간 가사도우미를 소개를 한 적도 있다. 이 경우 소개받는 형님은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동서가 훈련해 놓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임현영씨는 조카네 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를 소개 받아 딸 집과 공유하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는 딸 집에 주 3회 임현영씨 집에 주 1회 온다.

심재경 씨처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낯선 도시에서 직장 동료가 가사도우미를 소개해 준 경우도 있다.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 아이를 맡겨야했던 심재경씨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전에 일 하던 가정에서 ‘안 돌아다니고 애한테 다정하게 한다.’는 동료의 추천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

그 후 교체과정에서 심재경씨는 믿을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아주마들을 눈 여겨 보았다. “잘 있다면 분명 괜찮은 사람 일거야” 이미 테스트를 거쳐 괜찮은 아주마로 평가 되었으리라는 가정 하에 이웃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경우도 있다. 김민희씨와 이미경씨가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선점한 집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시간대를 감수한다. 말하자면 다소 보장된 서비스의 질과 시간상 불편함을 교환하는 것이다.

마땅한 가사도우미를 찾을 때까지 육아에는 적당했지만 아이가 커서 더 이상 필요성이 떨어진 나이든 가사도우미할머니에게 구직기간을 6개월 주고 이웃집 아주머니들을 살펴보던 심재경씨는 친구가 가사도우미 고용루트로 YMCA라는 공식채널⁷⁾을 알려주었고 현재 가사도우미는 그렇게 구했다. 청소 빨래 부엌정리로 특화하여 가사도우미를 양성하는 이 기관의 프로그램과 심재경씨의 요구가 잘 맞아들었다. 그러나 임현영씨는 다른 민간기관인 YWCA에 알선을 자주 요청하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경우여서 언제나 다른 사람이 와서 불편하다고 했다.

대개의 경우 집에 사람이 들어와 일을 한다는 점 때문에 주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점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즉 도난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가사도우미를 소개하는 비영리민간기관의 경우 신분을 확인하고 보장한다⁸⁾는 점이 이용자들에게는 유리한 점이다⁹⁾. 기관이 매개하는 경

7) 비영리민간단체는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데 가사도우미로부터는 연회비 30,000원을 사용자로부터는 연회비 20,000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소개해준다.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국가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들 단체는 한 편으로는 사용회원을 확보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지역사회에 단체를 홍보하는 효과도 얻고자 한다.

8) 2008년 10월 광주 YMCA 여성개발센터 가사돕는이 교육을 받는 회원이 제출할 서류는 증명사진,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입증명서(비과세증명서), 보증인 인감증명서, 재정보증서 각 1부이다.

9) 보조 제보자인 김경희씨의 경우, 한 번 왔던 가사도우미아주머니가 약속한 날짜에 계속 안 오고 집에 귀금속이 없어지자 소개업소인 YWCA에 문의해 찾아낸 수 도난당한 귀금속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

우, test할 여유가 없이 바로 써야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도 한다. 그런데 절약이 몸에 배인 임현영씨는 “YWCA에 내야하는 연회비 30,000원을 아끼고자” 인력 소개 업소에 부탁했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다. ‘그 사람은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막노동하는 분이 왔는데, 나 청소도 못 하는데, 그냥 그 쪽에서 가라고 해서 왔소라고 했다.’고 한다. 임현영씨는 인정상 돌아가라고 못 하고 하루 종일 일을 가르치다 돈만 졌다고 한다.

한 편 보조제보자인 서미라씨는 단 기간 내에 맘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신문에 구인광고를 활용하였다. 이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놓고 면접도 하고 한 두 번 사용 후 고용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고용 후에도 계속되는 전화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신분확인과정을 직접 거쳐야 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 맘에 드는 가사도우미를 만난 서미라씨는 도시의 반대편으로 이사를 왔으나 다시 맘에 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였다. 서미라씨는 이전 가사도우미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해주면서 즉, 풀타임전문직 주부인 본인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오게 하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의 근무시간은 출퇴근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이다.

그러나 제보자들의 고용경험을 살펴볼 때, 이렇게 표면상 다양해 보이는 고용경로는 제보자들의 선택의 폭을 의미 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풍요의 역설’ 곧 ‘풍요 속의 빈곤’을 의미한다. 이는 신분보장과 양측의 요구를 적합 시키는 적절한 매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지속적 고용의 어려움과 교체의 어려움

사용하던 가사도우미를 교체해야할 이 유는 가사도우미와 사용자 양측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가사부담의 증가 그리고 새롭게 가사도우미를 구하는데 따른 불확실성 즉 집을 비워도 믿을만한가? 가사노동은 내 마음에 들게 해 줄것인가?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사도우미가 계속 바뀌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이 점은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가사도우미를 교체해야하는데도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그런가하면 사용자가 원해서 가사도우미를 교체해야할 때에도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만 두게 하는 데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많다

제보자의 전언에 불과하지만, 가사도우미가 그만 두는 이유에는 과도한 가사노동량이 힘들어서 그만 둔다는 것이 들어 있다. “주1회 72평 복층 청소를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깔끔하니까 감당을 못 하나봐.(이미경)” 또한 금전 문제로 인한 오해도 이유가 되었다. “명절 전 더 줄 돈은 없고 남편에게 사정 말하면 살림 잘 못 한다고 할까봐 눈치 보다가 다른 날 오게 했더니 오해하고 그만 두더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사도우미집안의 긴급한 사정¹⁰⁾-남편과 자녀의 사고와 질병과 같은 - 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 편 가사도우미 측에서도 역시 안정적인고 수월한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부르는 횟수가 적고 일이 많은 집은 안정적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어렵고 자주 바뀌었다. 김시연씨의 경우가 그러하다. “내 집 일처럼 차분하고 꼼꼼히 할 사람은 나보다 더 자주 부

10) 현정혜·박혜인(1992)의 파출부아줌마들의 가족생활 연구에 따르면, 무주택 저소득 그리고 많은 식구가 이들 가족의 특징이며 생활과 관련된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궁핍하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르는 사람에게 가 버린다. 아니면 한 나절이 아니라 일을 하루 종일하겠다. 돈을 더 주라. 등 조건이 안 맞는다.” 김시연씨는 그래서 적은 횟수와 낮은 가사표준을 결합하여 스스로와 타협한 셈이다.

사용자측 이유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이므로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아이가 자라서 육아보다는 가사중심으로 전환해야 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았다.(심재경)’ 일은 잘하고 값이 비싸되, 하루에 여러 집을 해서 시간조정이 곤란했다.(김민희씨네 아줌마는 매일 세 집씩 일했다. 김민희씨가 차지하려면 새벽에 써야했다.) 불미스러운 도난 사건도 제보자들은 자주 경험하였다. 귀금속 도난, 현금과 수표도난, 아들 낳으라고 시어머미가 지어온 영양제 계속 먹다가 들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만 확증이 없을 때에는 죄짓는 것 같은 느낌이 싫어서 의심을 유발하는 가사도우미를 그만두게 한 경험도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학부모가 가사도우미로 와서 서로 불편해질까봐 그만두게 하기도 하였다. 자꾸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계속 고용할 수 없다. 또한 ‘2-3일 분량의 시장 봐 두면 한꺼번에 다 해서 버리는 사람’ 등을 사용자측에서 그만 두게 한 경우로 회상하였다. 이기연씨는 자신이 만난 여러 가사도우미들에 대해 “음식 잘 하면 간섭이 심하고, 청소 잘 하는 사람은 가사도우미를 한다는 사실을 남에게 들킬까봐 전전공공하여 손님도 꺼리고 결국 3개월 만에 그만 두었다.”고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곤란하지만 어렵사리 쓰고 있을 때 음식을 허락 없이 먹는다면 하는 교체 이유를 제공하면 바로 해고하였다고들 말하였다.

양측의 다양한 이유로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그만 둘 때의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 김민희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중단은 당장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다시 구하기와 훈련하기의 어려움, 전문직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구해도 아줌마가 안정되기까지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무슨 사고치나, 또 뭘 엉망으로 하고 있나”. 이기연씨는 “지금 아줌마 5년째 오지만 맘에 안 든다. 그러나 거짓말하거나 훔치지 않고 담백해서 청소가 주목적이지만 불만인데도 참고 교체하지 않는다., 바뀌도 더 좋은 사람이 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몸이 아픈 이기연씨는 어려운 청소일을 부탁해야 하는데 만약에 아줌마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용자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교체를 망설이는 이유가 되었다. 먼저, 그만두게 할 때 심리적 부담감도 주부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것이었다. 해고당했다는 상심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 사람을 그만 쓴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자리를 잃을 가사도우미의 가정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까, 과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줘도 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올 것인가, 일은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¹¹⁾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살림하는 방식을 새로 교육시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말지 또 다시 적응시키려면 귀찮아서” 하고 교체를 보류한다고 한다.

4. 고용전략들

제보자들의 행동가운데 안정된 고용을 위한 전략들¹²⁾이 발견되었다. 탐색단계에서 신분이

11) 제보자들은 가사도우미 사용과정에서 일정한 표준을 형성해 놓고 있다. 교체란 이러한 표준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갑작스러운 교체는 이러한 표준에 맞는 사람을 탐색할 시간적 여유와 심리적 몰입을 요구한다.

확실한 사람을 찾기, 내 집일처럼 해 줄 사람 찾기는 지속적 고용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일정기간 가사도우미의 안정적인 도움을 확보하기 위해 선불 주기, 아는 사람끼리 함께 고용하여 가사도우미의 일정한 수입보장하기, 옷돈을 얹어 주기, 음식이나 옷과 같은 물건 주기 등을 한다. 교수인 심재경씨는 방학 때면 육아와 가사를 겸하는 도우미가 불필요하여 월급을 주는 것이 아까웠지만 ‘아줌마를 잡아 두기 위하여’ 보수를 전부 지불하였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한다.

가사도우미를 그만 두지 못하게 하는 전략뿐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돈을 더 주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이 돌보는 일과 가사일을 겸할 때, ‘기름을 쳐서 아줌마도 좀 넉넉해지도록한다.’는 것이 이기연 씨의 태도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의식이며, 나 필요한 시간만 오게 한다면 아줌마의 시간을 잘라 먹고 돈을 못 벌게 하므로 그 쪽 입장에서 좀 넉넉하게 주고 좀 쉬게도 한다고 하는 심재경씨도 유사한 입장이다.

한 편, 교체가 어려운 일임에도 제보자들 사이에서는 가사도우미들이 시간이 흘러 적응을 하고 나면, ‘날로 먹으려고 한다.(즉, 편하게 일을 하려고 피를 부린다는 의미)’ 그러니 ‘한 번씩 바꿔 줘야한다.’는 일종의 고용전략을 공유하기도 한다(백장미, 이미경). 보조제보자인 가사도우미 우미희씨는 처음 가면 그 집이 익숙하지 않아 일하기 쉽도록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리고 그 후로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 이 처음

두 달 동안에 대한 부분이 사용자와 가사도우미의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사용자로서는 두 달이 지나면 가사도우미가 게을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IV. 가사도우미 가사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논의

1. 가사도우미가 하는 일, 그 상이성

가사도우미에게 맡기는 가사노동에는 가정마다 공통점과 상이성이 공존하였다. 특히 그 상이성은 가정생활주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집의 규모, 주부의 건강과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 혹은 관리방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가사도우미에게 기대하는 일, 시키는 일은 가정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기와 화장실 청소 그리고 청소기 돌리기와 바닥 닦기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원하고 또 가사도우미도 의례 하는 일로 여기는 듯하다. 청소에 관한 차이라면 총 정리는 주인이 하되 유지 관리만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정리까지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탁과 음식 하기 그리고 다림질 영역은 상당히 달랐다.

세탁은 모든 과정을 다 맡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함께 세탁할 빨래들 그리고 손세탁물 등을 분류해 놓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또 ‘세탁은 다 세탁기가 하는데 시간만 낭비한다.’고 미리 세탁기를 돌려놓고 빨래를 너는 것만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은근히 시간 걸려 부탁하는 부분이 게는 것’이라면서 빨래 게는

12)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제보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용방식도 알 수 있는데 종합해 볼 때, 돈을 많이 주고 붙잡아 놓는 방식과 정해진 돈을 주고 언제든지 바꾼다는 방식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취업주부들은 전자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후자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취업주부인 심재경씨의 제보에 의하면, 동료 가운데에서도 후자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이 두 방식이 전적으로 취업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다.

것을 부탁하는 경우, ‘옷감의 성분을 잘 몰라서 빨래를 다 상해 놓기 때문에’ 세탁을 전혀 부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손 자녀를 맡아 키우던 임현영씨는 어린아이의 기저귀는 특별히 손수 빨았다고 한다. 가사도우미가 어린아이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면 아이를 홀대할까봐 주의하느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 또 임현영씨는 아줌마를 시키면 기계조작이 미숙해서 세탁기를 고장낼까봐 새벽에 아줌마 오기 전 미리 세탁을 다 해 놓는다고도 한다. 이미경씨나 심재경씨의 경우를 보면, 다림질은 시간이 남는 경우에 부탁하거나, 잘 할 경우에는 부탁하고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탁소에 맡겨도 되는 일로 떨어진다. 다림질은 수행의 결과가 중요한 항목이며, 가사도우미와 대체되는 가정 밖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의 가사노동에서 쉽게 분리된다.

음식이 가장 차이 나는 영역이다. 백장미씨는 주로 음식을 맡기기 위해 매일 아줌마를 쓴다. 이미경씨는 여수에 살았을 때 돌산 갯김치를 많이 담가 그 동안 신세진 분들에게 나눠주고자 아줌마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심재경씨의 원칙은 ‘몸에서 가까운 것은 직접 하자.’는 것으로 음식 만들기는 가사도우미에게 부탁하지 않으며 설거지도 직접 한다. 음식을 특별히 잘 하는 가사도우미인 경우에는 부탁하지만 맛이 맞기가 어렵고 또 음식을 태우거나 양 조절이 어려워 낭비가 심하다는 것도 음식을 부탁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임현영씨는 아줌마들은 음식을 조미료로 맛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미료를 사다놓지 않으면, 천연재료로 맛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싫다고 회피한다고 하였다.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용 최소화와 효용극대화의 원리가 관찰된다. 이는 전반적인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주부의 역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는 세탁 시간을 줄이고 빨래를 넣고 개는 것만

부탁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하고 또 처음에는 청소만 시키다가 가사도우미가 빨리 퇴근하는 것을 보고 점점 일을 늘려나가 세탁물도 모아 맡기고, 음식재료도 다듬고 씻어 준비하게 하는 경우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미경씨는 일주일에 세 번 부르는 것 보다 두 번 부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의 강도를 높여 부지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경씨의 생각이다.

그러나 김시연씨 경우는 자신이 전반적으로 살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린 아이가 셋이 있어 가사량이 많은데도 가사노동전반을 장악하지 못하여 가사도우미가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취업주부인 김민희씨나 이기연씨 그리고 심재경씨는 가사도우미사용의 역사가 오랜 것도 있으나, 부재 시 가사도우미가 주부를 완전히 대체해야하므로 가사도우미에게 부탁할 내용이 분명하고도 구체적이다. 김민희씨는 매일 노트에 꼼꼼히 요구사항을 적는데 거기에는 가사노동의 방법과 시간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기연씨는 주1회 와서 반드시 할 일- 베란다까지 닦기, 목욕탕 청소, 욕조와 타일과 타일사이사이 닦기, 유리창 닦기를 첫 대면에서 각인시킨다. 심재경씨는 전반적인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경우로서 언제나 가사도우미가 특별하게 해 줄 일을 적어놓는다. 전업주부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몸이 허약해서 그렇지 모든 일을 깔끔하게 한다는 이미경씨도 가사도우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다.

2. 가사도우미 사용의 어려움

심층면접 자료를 볼 때, 가사도우미사용과 관련된 많은 불편한 점들은 가사도우미의 고용과 사용이 또 다시 주부의 관리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큰 불편은 가사노동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은 주부가 하고 수행은 가사도우미가 해야 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요체는 바로 의사소통이며, 제보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결의 노력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불일치하고 왜곡된 메시지, 수신자에 대한 수용이나 감정이입의 부족, 반대하는 말, 주의력이 부족함, 타인의 자아개념이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함과 같은 부정적 특성에서 비롯되는데(R. E. Deacan과 F. M. Firebaugh, 1991:177), 시간에 쫓기거나 건강하지 못하여 에너지나 주의력이 없는 즉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사용해야 하는 중산층 주부와 가계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선 가사도우미라는 계층이 서로 다른 두 사람간의 의사소통은 이러한 부정적 특성을 가지기 쉽다.

자신의 요구가 명확하지 않은 몇몇 제보자의 경우, 송신자의 부정적 의사소통 기술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가사도우미, 비관적인 가사도우미는 요구를 지적(指摘)으로 곱해하기도 한다고 한다.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뜻이 전달이 되어도 수행의 질이 높지 않아 원하는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좌절감은 지불한 비용으로부터 효용을 얻지 못하는 일종의 구매 후 불만족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불만족을 경험해야한다는 것이 가사서비스구매의 한 특성이 되었다. 그 밖에도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의 성과를 점검해야하는 가사도우미는 사용자의 표준과 일치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습관적인 표준에 일치시키기가 쉽다. 그렇다고 사용자의 점검은 지나친 간섭이 되어 가사도우미에 대한 불신감을 줄 수 있으며 가사도우미 측의 좌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가계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가사도우미라면 노력을 절

약하려는 무의식적 동기가 있고, 표준을 낮춘 다던지 일의 과정을 생략하여 자신의 가사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만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과 성과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바닥 닦기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바닥이 더러워서 거둬서 말해도 일부러 그렇게 하려해도 힘들 텐데 글썽, 걸레를 5mm정도 바닥에서 떼어서 닦더라고요.” 제보자들은 종종 이와 같은 가사도우미를 보고 ‘자기 일처럼 해주지 않는다, 양심도 없다.’라고 평가한다.

그 밖에도 가사도우미의 사용에 대한 불편한 점은 많다. 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반찬이 걱정되고 신경이 쓰인다, 월급제로 하는 경우 쉬는 날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다,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한다,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일한다, 빨리 가려고 보따리를 꾸린다, 집에서 샤워를 한다, 껌이나 영양제를 사놓으라고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집에 있고 싶어도 나가야 한다 등이다.

V. 주부의 가사도우미 관리방식

이 절에서는 일곱 명의 주요제보자들이 가사도우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유형화해 보았다. 가사노동을 보는 관점과 수행하는 방식 혹은 능력 그리고 가사도우미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범주의 이름을 합성하여 각 유형에 이름을 붙이고 해당하는 제보자들의 특성을 제시해 보았다. 제보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와 관점 그리고 수행 방식에 따라 보수·합리·취약으로 명명하고 가사도우미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지배·위임·의존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보수·지배형과 합리·위임형 그리고 취약·의존형의 세 유형으로 제보자들의 가사도우미관리방식이 유형화되었다.

1. 보수·지배형 <김민희 이미경씨>

이 유형은 가사노동의 전통적인 수행방식을 고수한다. 높은 표준과 다양한 가계생산물 (household commodity)을 생산하고자 한다. 이 유형은 일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을 통하여 가사도우미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시도한다. 자신을 주부 이미지에 일치시키고 가정은 가족들의 안식처라는 생각을 하며,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이유도 가사노동의 높은 표준을 유지하고 자신의 피로감을 줄여 가족이 돌아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 분담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취업주부인 김민희씨는 마치 자신이 집에 있는 것처럼 가사의 표준을 유지하고자 하며, 가사도우미의 출퇴근 시간도 전화를 걸게 하여 체크하고, 생선 다듬기는 고기의 모양을 그리고 칼집을 원하는 대로 내도록 고기 모양 위에 선을 그려 넣는다. 김민희씨는 ‘가사도우미를 잘 부리려면 본인이 일단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돈은 남보다 더 잘 주고 질을 높여서 해 주라고 하지만 만족하게 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평가 한다. 이미경씨는 ‘비상시 아줌마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예 집안일을 차고 가게끔’ 훈련을 한다.

가사영역별로 구체적인 요구가 있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민희씨나 이미경씨는 가사도우미의 어떤 부분이 자신의 표준에 맞지 않으면 한 동안 교육과 훈련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반드시 교체하였다. 이미경씨는 마음에 안 들면 가사도우미 사용시간을 온종일에서 한나절로 줄여버린다고 한다.

2. 합리·위임형 <이기언 심재경씨>

이 유형에는 전문직 취업주부인 이기언씨와 심재경씨가 포함된다. 취업으로 인한 부재 부

분을 보충할 사람으로 가사도우미의 확실한 역할을 규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과 가사도우미가 할 부분을 구분한다. 스스로 수행할 부분에도 자신의 철학이 분명하다.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아무리 최상의 가사도우미라도 내가 원하는 표준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스스로 한다. 이 유형은 가사도우미 일의 한계를 정해주고 자율성을 다소 인정하되 잘 안 되는 부분은 요구하여 관철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표준을 낮춘다. 어쩌면 청소와 부엌정리 그리고 쓰레기 버리기로 특화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가사도우미가 이러한 유형에 가장 적절할 것 같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여전히 가사도우미와의 표준조절은 어려운 부분이다. 거듭 요구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부분을 지적할 때 매우 힘들다고 한다. 이 두 체보자는 가사도우미를 최대한 대등한 관계로 대우하고자 노력하나, 가사도우미들이 가사표준과 수행수준에서 다른 계층의 한계 - 음식 만들기에서 재료의 사용이나 특정 음식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던지 -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다.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부분의 노동력 부분을 대체해달라는 거, 내가 집에 없는 시간만큼” 이것이 이들의 최종 요구로 정착하였다. “그 시간을 대체해주시니 애로사항이 없다.”

3. 취약·의존형 <김시연, 백장미, 임현영씨>

이 유형은 체보자들의 용어로 가사노동에 대한 천시, 힘겨움, 무관심, 무능력 등으로 특정 가사영역에서 혹은 전반적 가사노동에 대하여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체보자들은 의사소통 장애로 가사도우미에 대한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사도우미가 일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하면서도 분

명한 표현을 하지 못 하거나 표현을 했더라도 표준을 관찰하지 못한다. 가사도우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자신이 가사도우미를 보충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거나 다 떠맡게 되면서 불만이 누적되는 경우이다.

김시연씨는 ‘눈은 있는데 말도 못 하고, 아줌마가 시키는 일 따라하고 다닌다. 나는 가사도우미 관리가 안 되는 사람.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나(같은 사람도 다른 사용자에게 가면 다르게 일을 잘 함)’라고 자평한다. 백장미씨는 ‘아예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으며, 집안일을 안 해놓고 가면 투덜거리며 내가 한다. 난 표준이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 터치를 안 하니깐 게을러지더라.’라고 한다. 임현영씨도 ‘말 정말 함부로 못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듣다는 말 못 하겠대요.....결국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다림질 세탁 음식. 청소만 빼고요. 전혀 통제가 안 돼요.’라고 한다. 이 유형에 속한 주부들이 가사도우미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면서도 가사도우미 서비스 사용의 관리에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 정책제언

소비사회가 진행되면서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들이 상품의 형태로 등장하면서 겉보기에 가정의 일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본질은 한 편에서는 가정의 일상생활을 관리할 전담자

를 필요로 하며, 다른 한 편에서는 상품의 구매와 소비를 촉진할 대행자를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본질에 상응하는 존재가 바로 가정 내 기혼여성 즉 주부¹³⁾가 되었다. 이 연구에 정보를 제공한 주부들은 모두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후 최종적인 가공 및 유지 관리를 맡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가사노동을 힘겨운 반복의 연속으로 보고 있으며 주부라는 직책을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 이상한 전문직으로 보고 있다. 체보자들의 남편은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였는데 남편과 자녀와 가사를 분담한다는 것은 시도는 해 보지만 성취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하였다¹⁴⁾.

일상생활의 힘든 유지 이외에도 가족생활주기를 따라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거나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거나 자녀의 수가 많다면 가사량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수행에 필요한 시간이나 에너지를 제약하는 상황도 오늘날 우리의 가족상황에서 보편적이다.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시간부족 그리고 가족 혹은 당사자의 질병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그에 해당한다. 경쟁이 극심한 우리사회의 특수성과 공교육의 실패가 합해져 산출된 사교육의 일상화는 정보의 수집과 의사결정 그리고 아이 설득하기 및 차 태워주기¹⁵⁾ 등과 같은 일로 인해 주부의 일을 격증시켰다. 수준 높은 일상생활을 재생산하며 또 자녀를 훌륭한 노동력으로 길러 내고자 하는 중산층의 주부들에게 허드렛일 혹은 힘겨운 일, 아니면 시간이 소모되는

- 13) 우리나라에서 남자 주부도 상당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기혼 여성이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주부 일을 전담하므로 주부라는 말자체가 여성 명사화되어 있다.
- 14) 알리 러셀 혹실드 연구(2001)를 통해 볼 때, 미국 내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사정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가사분담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를 연구한 김선미·장상옥(2005)의 질적 연구 체보자들은 중하위층 혹은 하위 층으로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가사분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었고 가사도우미의 고용은 극히 드물 일회적 경험에 불과하였다.
- 15) 루쓰 코완(1997)은 자동차의 보급이 주부들로 하여금 상품의 운반지역할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주부가 맡게 된 가사노동의 증가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 날 우리나라 사교육 소비에서 주부가 자녀들을 차에 태워 학원으로 이동시키는 일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막중한 량의 가사노동을 의미한다.

일을 대체해 줄 가사도우미의 고용은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시간제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부유하지 않는 가정에서 조차 가사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사도우미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이 규명한 고용이슈와 사용이슈 그리고 유형분석을 통해 볼 때, 가사도우미 사용에서 생기는 새로운 관리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개별 가정에서는 가사도우미의 유연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주부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생활의 표준을 달성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그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고용의 문제는 가사도우미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용 전 정보부족, 신분의 불확실성에 의한 불안,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탐색시간의 낭비 없는 신속한 고용의 어려움, 원하는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보장의 결여, 적절한 보수의 수준과 인상시기의 모호성 등이며 그로 인해 개별적으로 고용전략들을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의 문제는 개별 가정에서 공통으로 원하는 가사영역이 있음과 특수하게 원하는 가사영역이 있으나 공통영역에서는 사용자의 표준과 가사도우미의 수행수준이 불일치하기 쉬우며 특수영역에서는 전문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사도우미가 드물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첫째,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아 가사도우미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용자를 안심시킬 뿐 아니라,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여 당사자 간 가격협상의 여지로 인한 갈등을 줄여주고 또 일정한 수준의 가사노동수행표준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양성할 수 있는 공급처를 제언한다. 이러한 중간 매개체라면 충분한 가사도우미의 pool을 형성하여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즉, 사용시간과 요구하는 가사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한 가사도우미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매개체는 공급자의 pool일 뿐 아니라 사용자의 pool이 되면서, 안정적 일자리를 원하는 한 명의 가사도우미와 최소 사용을 추구하는 여러 명의 사용자의 요구를 match시키는 방법으로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YMCA와 같은 민간단체는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사도우미를 양성 알선하고 있으며 위의 기준 가운데 신분의 보장이나 가격의 제시에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단체가 전국에 보편적이지 않고 대도시에만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또한 담당자를 면접하고 교육 자료와 교육과정¹⁶⁾을 조사해 본 결과, 일주일간의 교육이 이 연구결과 드러난 문제들을 제거할 만한 내용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실습교육이 포함되어서 감독과 수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집에서 하던 대로 가사노동을 해주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변경하고 가사노동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16) 주 5일간의 교육내용에는 단체에 대한 가사도우미의 ‘자세와 책임감’이라는 과목에서 자부심 있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교육한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안전관리, 생활 속의 환경운동 즉 분리수거와 쓰레기감량요령 및 세제의 영향, 세탁과 관리, 가정위생과 관리 과목을 수강한다. 그리고 실습처로 가정을 제공한 곳에 가서 2인1조로 하여 실습을 하면서 처음 해보는 어려움의 공유 및 두려움 깨기를 시도한다. 마지막 시간은 직업의식과 예절을 교육하고 전 과정을 수료한다. 그러나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본 연구의 보조체보자의 체보에 따르면 실습 후 가사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수정과정은 없다고 하며, 결국 자신은 평소 집에서 하던 대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가사도우미의 양성과 알선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각 영역별 전문화가 필요하다. 우선 허드렛일로 치부되면서 가사도우미들이 보편적으로 맡고 있는 청소 영역의 특화¹⁷⁾뿐만 아니라, 세탁이나 다림질 그리고 음식과 같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Heidi Hartmann의 가사노동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1974), 세탁소와 세탁기 회사의 경쟁 결과, 습식세탁은 세탁기가 도맡게 되었다. 가정에서 대부분의 세탁은 중요한 가사노동으로 남아 있다. 건조기가 보편적이지 않은 혹은 건조기가 있어도 전기요금에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나라에서 빨래를 널고 개는 일은 여전히 손으로 해야 할 일로 남아 있으며 일정 표준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일이다. 또한 세탁소에서 다리는 양복이나 코트와 같은 옷을 제외하고, 와이셔츠나 보통 입는 바지 그리고 티셔츠와 같은 옷들도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일이다. 밖에 식당이 있어서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사 와서 먹을 수 있지만 가정식 밑반찬이나 일품요리 등도 ‘가끔씩 혹은 드물게는 전적으로’ 맡기고 싶어 하는 일에 해당한다. 가정 밖에 세탁소와 식당이 있다고 해도 그 이용에 또 다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가사도우미가 할 경우에 주부들로서는 관리상의 분명한 이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가사도우미교육의 자료를 발굴하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주부들로부터 보다 많은 객관적으로 양화된 자료를 얻어야 할 것 같다. 그 때 양적 연구의 목적은 어떤 가정에서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사도우미의 일이 음식물쓰레기 치우기와 바닥청소 그리고 욕실청소로만 제한된다면, 가사도우미는 이름을 바꿔 대등한 지위를 연상시키고자 해도 여전히 허드렛일을 하는 직업군이 될 뿐이다. 그러나 전문성 있는 다양한 조합의 가사도우미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청소일 들을 묶어하는 house cleaning 전문 가사도우미는 그 전문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세 가지 사용자 유형을 볼 때, 사용자로서 어려움은 세 번째 유형인 취약·의존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도우미 사용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은 취약·의존형 주부들이 어떤 부류를 지칭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인 주부가 가사도우미를 자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보수·지배형이나 합리·위임형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거치는 과도기적 유형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가사도우미 교육에 있어서 전문화된 하나의 가사도우미형태로서 종합적인 관리 및 정리 도우미도 가능하다. 즉 살림도 잘 하지 못하고 가사도우미 관리도 잘 못 하는 사람 그래서 양자를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양성 및 알선을 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고용과 관련된 알선의 문제와 가사서비스사용의 문제이외에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양자 간 의사소통을 돕는 간략한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처음 만났을 때 중점을 두는 사항의 기록, 기간과 횟수에 대한 합의, 적절한 표준에 대한 가사별 합의를 한 두 페이지의 표준화된 문서로 만들어 놓고, 또

17) 송정숙(1998)은 남자과출부에 대한 경험담을 적고 있는데, 전문기능공을 부를만한 정도는 아니면서 힘센 남자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일감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직 이 연구에서는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가사도우미의 특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역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피드백을 정례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1대1 비공식적 계약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의사소통의 실패를 줄여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가사노동의 각 영역별로 수준 높은 수행능력을 보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의 요구에 따라 몇 가지 가사영역을 조합하여 수행하거나 종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을 갖춘 가사도우미를 양성하고 알선한다면,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면서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고, 또 잠재적 수요자를 발굴 할 수 있으며 전문성 높은 가사도우미라는 직업군을 창출하여 기혼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며 소득증대가 필요한 상대적 저소득 가족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미 가사도우미를 교육하고 알선하는 인력업체나 민간단체에도 이러한 제언을 하지만 주로 시와 군과 구라는 미세한 지역까지 가족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¹⁸⁾에서 가사도우미양성과 알선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본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운데 가정봉사원(Home helper)으로서 가사도우미¹⁹⁾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수요가정에 공급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기초연구에 불과하지만 이 연구의 성과가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의

제약점은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보다 다양한 주부들을 더 많이 관찰하고 면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적 하층 그리고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경험을 연구하여 가사도우미를 활용한 가사노동대체에 관한 한 편의 문화기술지를 온전하게 그려내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선미, 장상옥(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질적 연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9(3), 17-29.
- 2) 알리 러셀 흑실드(2001)저. 백영미 역.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야기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 아침이슬.
- 3) 루쓰 코완(1997)지음. 김성희외 역.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학지사.
- 4) 송정숙(1998). 남자과출부. 한국논단. 3월. 184-187.
- 5) 윤택림(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젠더 : 여성주의 문화기술지(feminist ethnography)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18(2), 201-229.
- 6)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8) 2010년까지 전국 234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의 공적 체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봉사원으로서 가사도우미를 양성 및 알선할 수 있게 된다.(정지영 외, 2008:38).

19)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05년 보고서 가운데 가정봉사원(홈 헬퍼)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가사지원 가정봉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 안을 보면, 20시간의 교육시간에 10과목의 교과목을 제안하고 있다. 거기에는 가사노동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초, 가사지원 홈헬퍼의 자세와 역할, 세제와 의류 세탁기의 원리와 기술실습, 가사지원상의 요리기술, 효율적인 설거지기술, 청소방법과 기술실습, 위생적인 가사관리 실습, 다양한 가족에 따른 가사지원의 처리, 바람직한 대화방법 기술, 실제 사례토의가 모두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습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할당시간은 더 길어야 할 것 같다. 또한 가장 큰 수요자들이 될 중산층 가정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하여 어느 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질 가사도우미를 양성 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가질 가사도우미를 양성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129-142.
- 7) 이임하(2003).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제14호, 251-278.
 - 8) 이재운(1976). 기간의 약정이 없는 가정부의 고용계약의 성질과 종료에 의한 보수산정액. 한국사법행정학회. 44-47.
 - 9) 정민자, 이승미, 고선강(2005). 가정봉사원(홈헬퍼)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10) 정지영, 조성은(2008).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21-39.
 - 11) 한정혜, 박혜인(1992). 대구지역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연구-과출부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4), 183-202.
 - 12) Heidi I. Hartmann(1974). Capitalism and Women's Work in the Home, 1900-1930. A Disertation of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Yale University.
 - 13) J. P. Spradley(2003)저. 박종흡 역. 문화기술적 면접법. 시그마프레스.
 - 14) J. W. Cresswell(1998)저.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학지사.
 - 15) L. A. Tilly J. W. Scott(1987). Women, Work and Family. New York : Mehuen.
 - 16) R. E. Deacan F. M. Firebaugh(1991)저. 가정관리학연구회 옮김. 가족자원관리. 한울아카데미.
 - 접수일 : 2008년 10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10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21일

<부록 : 표 1> 연구대상자

이름(나이)	취업상태	가족상황	주거환경
김민희(44)	개업의	남편과 한 자녀	60평 아파트
심재경(45)	대학교수	남편과 한 자녀	52평 아파트
이미경(45)	전업주부	남편과 두 자녀	72평 복층빌라
김시연(43)	시간강사	남편과 세 자녀	49평 아파트
백장미(44)	전업주부	남편과 두 자녀	49평 아파트
임현영(72)	전업주부	남편과 아들 내외	40평 주택
이기연(53)	대학교수	남편과 두 자녀	32평 아파트
보조제보자	장정희 ; 2008년 현재, 12년째 YMCA 가사도우미 양성 책임자		
	우미희(45) 2008년 현재 5년째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음.		
	서미라(37) 전문직 취업주부,		
	김경희(48) 전업주부. 가사도우미 15년 사용, 2008년 현재 사용하지 않음.		
	김선희(48) ; 전업주부. 가사도우미 18년 사용, 2008년 현재 사용하지 않음.		

제보자의 이름은 모두 假名입니다.